우암학원 창학 76주년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光州日報
74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657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11월 24일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광주·전남 통합…'대한민국 1호 통합 광역정부' 뜬다

시도지사 합의문 발표…시도의회 동의로 결정·6월 통합 단체장 선출
내년에 통합 청사 개청…이 대통령, 공공기관 이전 등 통 큰 지원 약속

총리 이번주 구체적 지원책 발표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해 온 시·도 행정통합이 마침내 닻을 올렸다. 〈관련기사 2·3·4·9면〉

이재명 대통령의 파격적인 지원 약속과 지역 정치권의 결단이 맞물리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양 시·도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대한민국 제1호 통합 광역 지방정부'를 출범시킨 뒤 2027년 통합청사 개청을 목표로 하는 대타협을 선언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를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확실한 보증수표를 받아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통합이 성사될 경우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부여와 대기업 유치 지원 등 상상을 초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확약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호남을 새로운 국가 성장 축으로 삼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시장과 김 지사가 이날 오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시·도민 보고회 지역 국회의원의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종합하면, 최대 난관이었던 통합 방식과 시기에 대한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확정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통합 결정 방식의 변경이다. 물리적인 시간 부족을 이유로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시·도의회 의결 방식을 택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찬 도중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통합 지역 우대, 대기업 추가 이전, 재정 특례 등 깜짝 놀랄 만한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해 온 호남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임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통합 후에도 현재의 시·군·구 행정 체제와 지방의원, 기초단체장 선거구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김영록 지사가 제안한 27개 기초지자체 존치 및 시·도청 소재지 유지 방안에 대해 대통령도 공감을 표하면서,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기득권 다툼이나 지역 간 유불리 논란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는 추후 선출될 초대 통합 시장(광주전남특별시장)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점진적인 통합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에너지 산업과 반도체 벨트 조성 등 구체적인 산업 육성 청사진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강 시장과 김 지사가 건의한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으며,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기업 유치 전략에도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지역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통합 찬성 입장을 공식화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 사격을 다짐했다.

정부와 여당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는 15일이나 16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구체적인 지원책과 함께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 통합 지원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내에 '광주·전남 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발표 시점에 맞춰 국회 공청회를 거친 뒤 통합지원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정부의 확실한 의지를 확인한 만큼 320만 시도민의 열망을 모아 7월 통합 지자체 출범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겠다"고 밝혔으며, 김영록 지사 또한 "단순한 산술적 결합인 1 더하기 1이 아니라 3 이상의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 대부흥의 역사를 쓰겠다"고 강조했다.

민감한 현안인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과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통합이 해결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어느 지역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로 광주와 전남은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실험대에 오르게 됐다. 주민 투표 생략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설명회를 강화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짧은 기간 내에 시도민의 공감대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성공적인 통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붕괴 참사…사고는 한순간 처리는 하세월 ▶6면
KIA 김규성 "올 시즌 다 보여주겠다" ▶18면
글로벌 현대미술 - 상하이 아트위크를 가다 ▶22면

민주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

최고위원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의원 선출

한병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의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선출됐다.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강득구(재선)·이성윤(초선)·문정복(재선) 의원이 뽑혔다.

한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백혜련 의원(3선)과 치른 결선 투표에서 승리해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

한 원내대표는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친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백 의원과 결선을 치렀다.

이재명 정부 들어 집권여당의 두 번째 원내사령탑에 오른 한 원내대표는 백 의원은 물론 진성준·박정(이상 3선) 의원과 경쟁을 벌여 승리했다.

한 원내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올해 5월 중순까지 4개월간 원내 지휘봉을 잡는다.

한 원내대표는 86(1960년대생·80년대 학번) 운동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 등을 지내 당시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로 분류됐다.

한 원내대표는 앞선 정견 발표에서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 끝장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특검법 처리 이후에도 전광석화처럼 민생·개혁 법안을 밀어붙여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단단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권리당원 투표 50%, 중앙위원 50% 투표를 합산한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도 발표했다.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이 차례로 1~3위를 기록해 새 최고위원이 됐다. 이건태 의원은 4위로 탈락했다.

신임 최고위원들의 임기는 전임 최고위원들의 잔여 임기인 올해 8월까지다.

애초 당권파인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과 비당권파 강득구 최고위원, 이건태 의원,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경쟁을 벌였다. 유 위원장이 중도 하차하면서 당권파과 비당권파가 2명씩 팽팽한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강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과 내란 청산, 6·3 지방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내란 청산, 검찰·법원 개혁, 지방선거 승리, 조희대 수사 촉구, 당정청이 원팀이 돼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당원의 요구를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문 최고위원도 "저희가 당원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정청래 지도부의 단단한 결속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